

사무엘상 11.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삼상 10 장 1-27 절)

들어가기

사무엘상 10 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부음을 받는 내용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확신시켜주는 3 가지 징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이 전한 징표가 다 이루어짐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미스바에 모이게 한 뒤, 제비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사울을 환영하며 만세를 외쳤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 기름부음을 받는 사울과 사무엘이 전하는 3 가지 징표 (1-8 절)

1)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1 절)

- 구약 시대에 기름부음을 받는 3 가지 직분 = 왕, 제사장, 선지자
 - > 이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지휘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휘를 인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란 사실을 상징하는 것!
 - >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반드시 기름부음을 받아야지만 인정받는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었음!
- 1 절에서 주목 -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뒤, 그에게 입맞춤을 했다는 것!
 - > 구약의 입맞춤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자임을 인정하는 표시였고, 앞으로 그에게 신하로써 충성을 다짐하겠다는 표시였음.
-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오직 주님께 입맞춤으로 믿음과 충성을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주님께 거짓 입맞춤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진실한 입맞춤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합시다.

✚ **생각하기 1. 그런데 사무엘은 왜 사울에게 기름 붓는 예식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2)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3 가지 징조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2-6 절)

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경계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로부터 잃어 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2 절)

➔ 이것이 의미 하는 것은 무엇일까?

- 표면적으론 사울이 염려하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
- 곧 나귀를 찾게 된 것은 사울의 염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는 사실!
-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의 염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

잠언 16 장 9 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그의 염려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② 하나님을 뵈려고 벧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 (3-4 절)

➔ 이것이 의미 하는 것은 무엇일까?

- 표면적으론 떡 두 덩이를 사울이 받게 됨으로 사울이 왕이 될것이란 예언을 확인시켜 주는 것!
-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저들은 하나님을 뵈려고 벧엘로 올라가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 곧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사울이라면, 이제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를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여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③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사울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 (5-6 절)

➔ 이것이 의미 하는 것은 무엇일까?

- 결국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 그리하여 이전의 삶, 인격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롬 8:16)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신앙경력의 많고 적음이나, 교회의 직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그로 인해 그의 삶과 인격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 특별히 여기서 6 절을 주목!

“네게는 여호와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 ‘새 사람’이라는 원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뜻!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인격과 삶도 완전히 변화되어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이상의 3 가지 징표를 전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2 가지 명령을 하였습니다.(7-8 절)

① 7 절 : ‘**기회를 따라 행하라**’

-> 앞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 - 사울의 의지적 행동을 요구!

곧 사울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행히도 훗날 어느 정도 정치적인 배경이 갖추어지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교만해져서 자기 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사까지 지내어 결국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② 8 절: 길갈로 내려가서 7 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을 것.

-> 거기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

곧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가르쳐주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결국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신학자의 코멘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가 된다!”

2. 사울은 3 가지 징조를 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9-13 절)

1) 9 절 주목: 사무엘을 떠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

->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하나님은 미리 주셨다는 것을 의미!!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선지자의 무리 앞에서 예언하였습니다.

->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전 인격을 불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음을 증명하는 것

3) 이때 선지자의 무리들은 예언하는 사울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였습니다.

-> 어떤 사람들 = ‘사울도 예언을 하느냐?’ 또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참고로 여기서 저들이 말한 ‘아버지가 누구냐?’는 말은 사울의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킨 말이 아니라 사울을 가르친 선지학교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란 말..

-> 곧 사울과 그의 가문이 선지자 학교의 수업을 받은 일이 없는데, 어찌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느냐는 것!, 그러나 이들은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면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 장 27-29 절,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 집으로 돌아온 사울은 사무엘과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4-16 절)

■ 긍정적인 사울의 성품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듯.

① 겸손한 마음 +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자랑하며 특히 왕이 될 것이라 교만하게 떠벌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음.

◆ 이것은 사울이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②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4.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17-24 절)

1) 사무엘은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도록 하였습니다.

① 제비뽑기의 방식?

각 지파 별로 천명씩 선택해서 나오게 함 -> 베냐민 지파 ->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

②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했을 것…

2)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짐 보따리 틈 속에 숨어있었습니다.

✚ **생각하기 2. 그럼 왜 사울은 숨어 있었을까?**

5.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며,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였습니다. (25-27 절)

1)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사실...

2) 두 부류의 백성들이 나타남..

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 사울을 따라감!!

- ◆ "감동되다"란 말은 단순히 "마음이 움직였다" 는 의미가 아님!!
- ◆ 이것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돛단배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
- ◆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친히 사울에게 붙여 주시며 움직여 주셨다는 사실!!

② 사울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

- ◆ 성경은 저들을 ‘불량배들’, 혹은 ‘비류들’ 혹은 ‘벨리알의 아들들(KJV) 혹은 ‘무가치한 사람들’(NASB) 라고 표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게 협력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성경은 무가치한 사람들이라 표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무작정 불평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사울은 자신을 반대하며 대적하는 이들에게도 온유함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27 절)

-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온유함으로 해야만 할 것!!

✚ **생각하기 3.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